



사람 · 어울림 · 꿈

광장



아기스포츠탄 들살림캠프



※ 환경보호를 위해서 소식지의 내지는 재생지로 만들고, 표지는 코팅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09



2 머리글

개미 시민의 선택(2) 선심성 예산과 왜곡된 정치 | 김기현

6 교실탐방

[아기스포츠팀] 추억의 YMCA 가족운동회~~~ | 김선영

[아기스포츠팀] 복사골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 정세영

[어린이Y] 세 번째 하룻밤 캠프를 다녀와서... | 박제이

[체육교육팀] 응급처치 교육 | 김혜련

16



16 클럽이야기

[등대생협] 나 빛길지기 2기 나온 여자야!!! | 오란숙

[등대생협] 풋볼수련회를 다녀와서...

22 만화로 보는 밥상톡톡 밥상샐. 식품첨가물을 찾아라! | 연은미

26 의창한담(醫窓閑談)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성조숙증과 한방 생리 | 박종훈

28 지역이슈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 박다정

31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2) “죽 쑤어 먹자!” | 한면희

33 카드뉴스

39 특집

[대장들넌의 여름] 러닝유스 1기! 대장들넌으로 달리다! | 조혜진

43 회원광장

스스로 찾는 행복~ 덴마크! | 장근영

작은 나무 | 왕정현

49 부천Y 이모저모

55 클럽일정 및 주요일정

39



발행인 변종목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7년 11월 15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지재단 박종훈, 한정숙, 왕정현, 김현주, 노진영, 연은미, 박명애, 조혜진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y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개미 시민¹⁾의 선택(2)²⁾

선심성 예산과 왜곡된 정치



부천시 사무총장 김 기 현

시민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아래 숫자를 한번 쪽 읽어보자.(혈압이 높은 분은 주의하세요!)

2017년 부천시 예산.

‘신문 등 간행물 구독관리’ 1억 5천 7백여만원(작년보다 2천 4백만원 증액), ‘행정광고’ 4억 8천 9백여만원(작년보다 1억 1천만원 증액), ‘복사골부천 제작비’ 1억 7천만원(작년보다 3천 8백만원 증액).

‘보훈단체 운영비’ 4억 3천 4백여만원(작년보다 5천 1백만원 증액), ‘국민운동단체 운영비³⁾’ 1억 4천 4백만원, 세부적으로 새마을회 4천 8백만원, 바르게살

1) 그냥 재미로 만든 조어(造語)입니다. 개미처럼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이 잔머리만 굴리며 군림하는 배짱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고, 행동해야 한다.

2) “지방자치 무용론”을 심심찮게 듣는다. 심정적으로는 공감되지만, 깊게 생각하면 왜곡된 선거제도, 권위주의, 독단과 독선이 용납되는 제도적 허점, 승진에만 연연하는 공직사회, 시민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3)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국가동원체제로 만들어진 단체들이다.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성인들이 활동하는데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 3천 2백만원, 자유총연맹 3천 2백만원, 자연보호협회 3천 2백만원. 이들 단체는 운영비 외에도 사업비로 새마을회 1억 2천 9백만원, 바르게살기 4천만원, 자유총연맹 3천 3백만원, 자연보호 4천 8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문화·체육 행사’⁴⁾ 복사골예술제 3억 6천만원, 시민어울림 한마당 8천만원, 비보이 전국챔피언 대회 2천 5백만원, ‘부천 세계 비보이대회’ 3억 6천만원(작년보다 8천만원 증액), 부천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억 9천만원, 부천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억 5천만원.

부천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월 288만원(연간 3천 4백만원), 부천시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월 138만원(연간 1천 6백만원), 상임위원장 4인 업무추진비 월 100만원(연간 4천 8백만원).

정치, 도대체 왜 이러나?

현재 김만수 부천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부천시의회 28명 중 민주당이 16명으로 과반이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의 기본기능은 실종되었다. 지난 3년간 김만수 시장은 인구밀도 전국 2위, 녹지율 전국 최하위 도시인 부천에서 각종 초대형 개발사업을 강행하였다. 2015년에는 1년 내내 ‘부천시청 옆 시민의 땅 1만평 매각문제’⁵⁾로 지역갈등이 격화되었고, 2016년부터 올해 중반까지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문제’⁶⁾로 갈등이 부평·계양까지 확대되더니, 현재는 ‘대장동 산업공단’⁷⁾을 추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었**

4)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체육 행사가 지나치게 많고, 중복된다는 평가도 있다.

5) 최종적으로 1만평 중 4,600여평이 매각되어 49층 고층아파트 6개동이 들어서고 있고, 올해 9월 7일 3,600평을 추가로 매각하였는데 이곳에도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6) 당초 2만 3천평 매각계획에서, 논란이 격화되자 김만수 시장은 “매각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부천시 최초로 주민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통법 개정’ 등을 이유로 신세계에서 사업을 포기하였다.

7) 김포공항에 인접하여 논과 묵논 습지로 보전되어 법정보호종만 37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 대장들녘 120만평 중 70만평을 산업공단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부천시는 추진 중이다.

고, 시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리 없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부천시는 ‘방범용CCTV 운영’ 19억 2천 588만원(작년보다 8억 3천 194만원 증액),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15억 9천 7백여만원(작년보다 7억 9천 7백여만원 증액)으로 CCTV 운영, 관리에만 35억 2천 3백여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CCTV 설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 외에 “CCTV가 범죄 감소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치라면 조사활동, 연구회, 토론회 등을 통해 “CCTV 설치에 대한 과학적 접근, 시민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시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부천시는 편의적으로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일까?

‘참자치란 무엇인가?(미국의 지방자치 이야기)’(문영훈 저)는 위싱턴주 스노클미시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했던 우리나라 공무원이 쓴 책이다.

“그들은 획일성을 거부했다. ‘일사분란함’을 혐오했고, 내 앞의 사람이 그리고 바로 옆의 시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시와 다르다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바로 참 자치의 요소였다....자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몸집이 가벼워야 함을 알고 있었다.....시장, 시 의원, 시 관료, 기업 또는 언론 그 어디에도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고 있었고, 철저하게 분권화 시켜 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가 용납하지 않았다.” (서문 중)

물론 스노쿨미시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작은 시⁸⁾이다. 하지만 시민참여라는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참여는 일상의 정치·행정 문화로 자리하고 있고, **시민참여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권위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작은 시이긴 하지만 시장과 시의원 모두 비상근이고, 시의회는 격주로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장과 시의원, 시청 간부들이 모여서) 의안을 처리한다. 시의회를 참관한 저자는 “진지한 토론전개와 인격적인 회의진행은 배울 것이 많았고, 시 간부들과 한 건, 한 건 의안을 처리해나가는 모습이 고도로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치, 게임의 룰(선거제도)을 바꿔야 한다.

생태환경도시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시의회에 13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 양당 중심이다 보니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는 42석 100%가 새누리당, 광주시는 19석 100%가 새정치민주연합, 우리가 사는 경기도도 116석 중 62.1%(72석)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 이렇게 구성된 의회는 원천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더욱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다수당을 한당이 차지할 경우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고,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선·독단의 정치가 횡행한다.**

이제 이런 후진적인 정치를 바꿔야 한다. YMCA를 비롯한 2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 국민행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정치인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에 미온적이다. **결국 시민들이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8) 대다수 선진국은 1~3만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9) 구체적이고, 긴 내용이라 관심있는 분은 부천Y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아기스포츠탄

추억의 YMCA 가족운동회~~~~



한겨레반 섬김지기 김 선 양

내 어린 시절의 운동회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나이가 되어 버린 지 어언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 아마도 청군 백군 나눠서 2인3각 경기도 하고 풍선타뜨리기, 기마전, 이어달리기 등등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 운동회를 아이가 Y에 입단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다시 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치열하게...

혹자들은 아이 운동회지 무슨 어른들이 저리 난리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르는 소리. 현장에서 눈으로 몸으로 보고 뛰고 함성 지르는 그 시간 우리는 다시금 세월을 거슬러 유년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사실 나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완전 몸치이다. 그런 내가 가쁜 숨을 이겨내며 줄넘기도 해보고, 이러다 둘째 나오지 싶게 줄다리기도 해보고, 목이 쉬어라쉬어라 응원가를 불러내고...그 순간은 정말 신기하게도 나는 아이와 같은 나이가 되는 듯하다.

오늘도 아침이 밝아왔다. “하하하, 오늘은 YMCA운동회의 날.” 날씨도 그 어느 날보다도 맑고 푸르르다. 이번에는 아이의 반 섬김지기를 맡게 되어서 나도 같이 입장한다. 깃발 들고, 아 떨린다.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입장을 한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자리를 잡는다. 그간 열심히 연습을 하였기에 5세 동생들까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간다. 선생님과 아이 대표의 성화 봉송을 보자니 “올림픽이 따로 없구만”하는 생각이 든다. “아기스포츠탄 일동!”이라고 토랑토랑한 목소리로 아이들의 운동회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선서로 운동회가 시작된다. 집에서 아이가 선서 연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찌나 기특한지 운동장에서 선서하는 내 아이의 모습이 가슴에 확 들어온다.



아이들의 체조 마스게임이 시작되었다. 아이가 지금 7세이기에 사실 이 운동회도 3번째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체조 마스게임을 볼 때마다 감동받는다. 특히 명상체조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저 마음, 저 모습을 짝옥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본다. 부채를 들고 하던 우주자전거를 보면서는 흐뭇했고, 영맨을 부르며 체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귀여움이 느껴졌다. V자앉기를 하는 모습에서 부모님들은 박수가 저절로 나왔고,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동작 모습 등에 우리의 맘이 들썩들썩한다. 이어서 아이들의 전체 달리기 게임이다. 시작점에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첫 번째로 들어오든 마지막으로 들어오든 상관없다. 그저 끝까지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울 뿐이다. 어느덧 아이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른다. 아이의 달아오른 볼에 내 얼굴을 대어본다. 뜨거운 열기가 전해진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Y운동회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다. 반별로 같이 만들어 먹는 비빔밥. 각자가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준비해와서 한데 섞어먹는 비빔밥. 난 Y에서 먹는 비빔밥보다 맛있는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전주비빔밥? 흥 저리가라해...Y비빔밥이 최고다. 아이들은 점심을 후딱 먹는다. 어울림마당에 가서 놀기 위해서. 우리 아이도 역시 아빠 손잡고 나선다. 아빠에게 용돈을 빌어서 겨울 양말도 사고, 엿도 사먹고 딱지치기도 하고, 한 번을 성공 못하는 투호놀이도 해보고, 계단에 앉아서 아이와 아빠가 손잡고 다니는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아이와 아빠가 지금의 저 다정한 모습을 짝옥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덧 오후 경기가 시작된다. 이제는 치열함의 시간이다. 우리 반 단체줄넘기 어머님들은 그냥 쉬엄쉬엄하시라 했는데도.. ㅎㅎ 2등을 하고 돌아오신다. 역시 수준급이시다. 지금 그 상품으로 들고 오신 쌀로 뭐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빠게임 지그재그 달리기는 정말 웃음을 제대로 선사한다. 내 남편도 아닌 테도 줄넘기에 발걸리는 분들을 보자니 웃음과 안타까움이 섞인다. 아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하하

엄마게임의 하이라이트 줄다리기. 재작년 5세 때 우리반은 줄다리기 우승을 거머쥐고 동시에 운동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겨야한다. 허나 7세 어머님들로만 이루어진 우리 초록군. 힘이 달린다. 줄다리기 팁을 다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끌려간다. 어머님들의 줄다리기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가족게임으로는 가마타고 호박엿 먹기를 했는데 후유증이 있다. 아이가 너무 좋았는지 자꾸 가마를 태워달라고 한다. 아들이 그건 게임할 때만 하는 거라고 누가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대망의 공동체 릴레이. 작년까지는 부모님 대 교사의 경기였으나 올해는 군별 릴레이다. 치열하게 달리시다 보니 넘어지시기도 하고 특히 올해 릴레이에서는 언급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미선 선생님의 전력질주가 인상적이었다. 너무나 잘 달리시는 것처럼 보였다. 하하.

운동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다. 몸이 힘들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적극적으로 못했던 점이 아이에게 미안한 맘이 들었다. 우리반의 어느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경기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부럽고, 아이에게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바라면서 난 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을텐데 하며 잠시 반성의 시간도 갖는다.

어느덧 YMCA운동회 3년차가 되어버렸다. 마지막 운동회라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난 아니 우리 가족은 내년 YMCA운동회에 또 올 것이다. 옆집 동생의 운동회를 응원하러 온다는 핑계를 대고~~~

아기스포츠탄

복사골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한마음반 준우 아빠 정 세 영

한 달 전쯤인가 아기스포츠탄에서 복사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족은 모두 참여 한다는 아내의 통보를 들었다. 우리 집 막내인 준우의 아기스포츠탄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별 저항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하였고 준우 엄마와 4학년인 첫째까지 뛰기로 했다. 3년째 아기스포츠탄에 다니는 아이의 아빠로서 느끼는 **아기스포츠탄의 장점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면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고 아빠의 힘만으로는 채우기 부족한 부분을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채워준다는 점이다.** 물론 가끔은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말이다.

한 달에 1~2번 집 근처의 산에 가는 것 외에는 최근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5Km라는 거리는 뛰어본 적도 없기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몇 년 전에는 살을 빼겠다는 일념으로 러닝머신도 3Km 정도씩 꾸준히 달리기도 하였고, 이제 마흔을 갓 넘긴 나이는 아직은 젊다는 혼자만의 생각, 7살 꼬맹이들과 맞춰서 달리는 것이 뭐그리 힘들까 하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드디어 마라톤 당일 바깥에서만 보던 부천종합운동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대회 참가자들이 보였고 이내 5Km를 뛰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실감도 나면서 막연한 걱정도 밀려왔다. 아기스포츠탄 부스를 찾아가니 나는 그렇게도 싫어하는 주말의 이른 아침 출근 후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극한 직업의 YMCA선생님들이 보였다. 그 와중에 선생님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역시 평소의 YMCA 어린이들처럼 이날도 자유분방한 모습들이었다. 가끔 YMCA 어린이들이 얼마나 친구들에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 매달리고 엉겨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실 것이라는 짐작과 함께 그 피곤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선생님들의 안내와 도움으로 출발선에서 대기하다 총성과 함께 출발! 출발하자마자 첫째는 같이 참가한 또래의 조카와 함께 땀하니 앞서 나갔고 나와 같은 아기사포즈단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주변에서 함께 뛰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주말 아침에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귀찮음이 없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차로 가득 하던 길을 맑은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 번의 마라톤

참가로 아주 건강해진 것 같은 착각도 생길 정도로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그동안 YMCA에서 연습을 했었던 것인지 아이들은 생각보다 질서 있게 대형을 유지하며 꾸준히 잘 달렸다. 사실 내가 그 동안 보아온 준우는 체구도 작고 체력도 약해서 잘 할 수 있을까? 5Km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아빠가 같이 뛰는 것을 보면 중간에 안아 달라고 하거나 앉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듯이 뒤통지거나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고 1Km 표지판을 지날 때부터는 안심도 되었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약간의 오르막길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이고 준우 역시 지쳐 보였지만 평소의 장난기 있는 모습들과는 달리 한 어린이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결승점까지 들어왔다. 결승점에 들어오고 나니 모두 엄마, 아빠 먼저 찾는 모습들은 여지없이 꼬맹이들의 모습이었지만 짧지 않은 거리를 모두 무사히 들어온 것만으로도 모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마라톤은 끝났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평소에는 이런 천연 잔디 운동장에서 뛰어놀 기회가 없으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이런 흐뭇한 광경을 보면서 이번 마라톤의 화룡정점을 찍기 위하여 경품 추첨에 귀를 쫓긋 세우고 있었지만 역시 팽! TV를 받아가는 부러운 사람이 실제로 보였다. 준우도 어느덧 아기스포츠팀단 3년차가 되었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YMCA의 공동체 한마당, 운동회, 마라톤대회 참가, 각종 캠프들, 병아리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들에 참여할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쉬움과 함께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은 행사들에도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런 마음을 알아챈 듯이 벌써 이번 주는 운동회, 그 다음 주는 대전에서 열리는 병아리 축구대회 참가로 벌써 2주간의 일정이 잡혀있다. 아기스포츠팀단 아이의 아빠로서 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YMCA 아기스포츠팀단에 감사드리며 내일 있을 운동회에서든, 그 다음 주의 축구 대회에서도 아이와 즐기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어린이Y

세 번째 하룻밤 캠프를 다녀와서...



어린이 Y 민주시민반 박 제 이

캠프 첫 날은 오방색 실로 장명루를 만들었다. 한 가닥 한 가닥 실을 얹으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원팔찌이다. 북한말 OX퀴즈대회도 했다. 도시락은 북한말로 꽂밥, 젤리는 단묵이라고 한단다. 우리말과는 조금 다른 북한말이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었다.

평화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둘째 날에는 임진각에 갔다 왔다. 가서 모노레일을 타고, 제3땅굴도 들어가 보고 6.25전에 서울에서 북한까지 가던 증기기관



차도 보고 기차길이 끊긴 것도 보고 6.25때 증기기관차에 총알이 박힌 것도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가 달려있고 군인들이 지키는 곳을 향해 통일되게 해달라고 외쳐도 보았다. 증기기관차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들어 놓은 곳도 들어가 보았다. 임진각 꼭대기도 가고(계단으로) 서울에서 북한까지 가던 철길도 올라가서 중심도 잡고 연못도...(응?) 가봤다. 개구리도 봤다. 빨간 개구리, 전투식량(건빵)도 먹고, 사탕도 먹었다. 전투하러 가는 건 아니고... ㅎㅎㅎ 그리고 성당을 갔는데(개인일정) 피곤해서 신부님 말씀 시간에 졸았다. 피곤하면서 재미있는 캠프였다.



체육교육팀

응급처치 교육



체육교육팀 김혜련

현재 사회는 불안정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안전이나 사회 안전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사회 속에서 나 자신과 내 가족, 나아가 타인까지 이들을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사회교육부 체육교육팀에서는 10월부터 4, 5, 6시 어린이 수영 강습을 듣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작스럽게 멈췄을 때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으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 없는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구조 요청을 하고 기도유지를 하며 인공호흡과 인





공순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즉시 실시하게 되면 소생율이 80%가 넘는 응급처치이지만 우리나라는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은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며 일반 시민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심정지 환자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은 해마다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실태입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위급상황이지만 응급처치 시 소생율이 높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으면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는 것임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30, 31일에 4, 5, 6시 어린이 수영 강습시간에 교육용 AED와 성인애니를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교육을 시작으로 여러 방면에 활용 방안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 타인을 남이 아닌 이웃으로 생각하여 이웃의 안전도 지켜나가며 나아가 나와 이웃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의 안전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것이 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이 그 시작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대생협

나 빛길지기 2기 나온 여자야!!!



매주그대와등대 오 란 숙

“너 빛길지기 2기 후보야” 어느날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한마디~~

“누구 맘대로?”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사실 놀랍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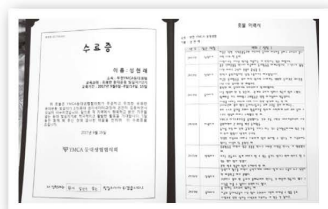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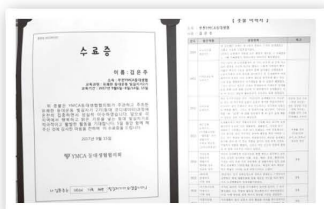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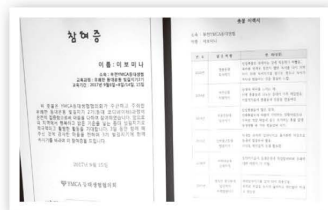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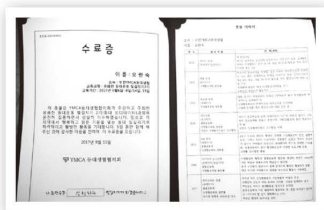
촛불인생 7년차...이즈음 되니 눈치가 뵈하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말 해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내공이 쌓였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모른 척~~ 아닌 척~~~싫은 척도

괜히 해본다. ㅎㅎㅎ

씨알도 안 먹힌다. ‘나는 등대 잘하고 있는데 뭘 더 배우라는 거야’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된 빛길지기 2기 과정.

다른 지역의 내공 있는 촛





불들과 실무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7년이라는 나의 촛불경력이 초라했다. 11년 차.. 13년차... 이사장?... 허걱!

종일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배움과 토론의 시간. 아~~ 뽕새다.

‘등대’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구성된 강의들... 마음나눔에 의미도 되새겨보고 등대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등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너무 익숙해져서 또는 조금은 시들해져서 영혼 없이 활동해 왔던 것들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러했던 듯도 하다.

등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마음도 모두가 나의 마음과 같다. 우리는 잘 통하는 느낌적인 느낌^^ ㅎㅎ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또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을 잘다지고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촛불이 되리라 다짐 해본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 눈 크게 뜨고 YMCA 구석구석을 후비고 다니련다. 빛길지기 3기 후보를 찾아서 ~~~~



등대생협

촛불수련회를 다녀와서...

- 일시 : 2017년 9월 9일(토) 오후2시~10일(일) 12시까지
- 장소 : 부천 산어린이학교
- 참여 : 촛불16명(낮등대+저녁등대), 실무자3명
- 주제 : 내가 바라는 등대생협과 나
- 프로그램 : 몸풀기(전래놀이), 주제강의(시민적 실천과 대안), 신뢰씨클, 보물찾기, 나에게 쓰는 편지 등

해바라기 등대 박미란 촛불

처음으로 자치와 나눔이 있는 따뜻한 생활 공동체인 등대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촛불 수련회에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촛불 수련회 날까지 참여 여부에 있어서 고민도 했지만 촛불 수련회에 도착해서 선배 촛불님들과 인사와 짧은 이야기 후 내가 왜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는 마당으로 전래놀이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나이를 잊어버리고 신나게 참여를 했어요. 자기소개와 인터뷰에서는 촛불님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마음 나눔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소리등대 안지수 촛불

어색함을 감추려 열심히 웃어가며 있어야지 라는 마음이 썩가시며 전통놀이에 폭 빠져서 웃고 응원하고!! 얼마만에 느껴보는 화이팅인지... 지금 생각하니 좋기도 또 다른 면으론 내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맛난 저녁식사를 마치고 제일 두려울 거라 생각했던 총장님의 강의!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선물 받은 책도 잠깐씩 꺼내어 읽어보기도 하며 나의 잘못된 소비습관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찾는 시간... 이 시간은 과거의 소중한 추억속 에 나를 찾는 시간으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나쁜 아니라 나의 엄마아빠가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예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란 생각에 요즘 더욱더 감사한마음 가득 잘살게 되는 계기가 된 수련회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웃음소리등대 이선영

기대와 설렘과 부담감을 가지고 참석한 새내기 촛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련회. 새벽까지 이어진 시간이었지만 과거의 나부터 지금의 나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배촛불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신입 촛불님들의 새로운 기운까지...새삼 등대의 일원임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바른 시선과 생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나무등대 고경애

딱지치기, 고무줄뛰기, 비석치기 같은 옛놀이들을 마지막으로 접한지 얼마나 되었더라? 기타치며 노래 부르고, 또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본 순간은 삶 속에서 언제 접할 수 있을까?

처음 촛불수련회 공지를 들었을 땐 가족들에게 “‘엄마, 부인, 며느리’가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수련회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선뜻 참여 신청도 못하고 있었지만, 다녀오고 난 지금은 내년에도 꼭 참석해서 1박2일 꽉 채우고 말리라는 다짐만 남아있다.

촛불수련회를 통해 나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가족의 의미,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선배촛불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드대(밥상)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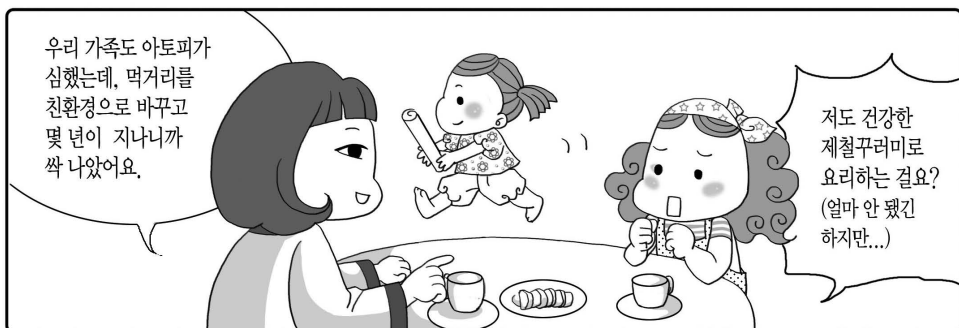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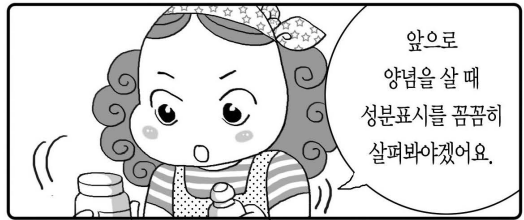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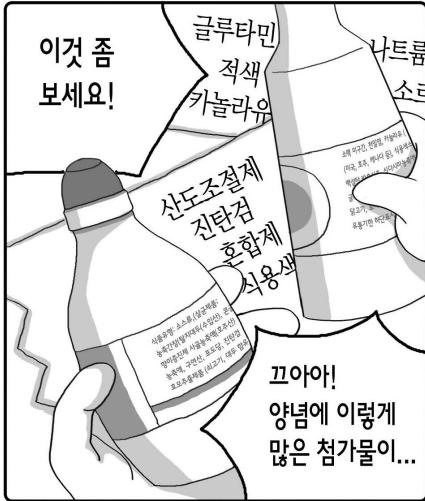
밥상 셋. 식품첨가물을 찾아라!

글.그림 연은미

밥상독톡









생강은 설탕과
반반 비율로
생강청을 만들어
보세요.

냉장실에 넣어놓고
생강 넣어야 할 때
양념으로 사용하면
편해요.

그럼,
단맛과 생강
둘 다
해결할 수
있지요. 아하!

첨가물 없는 엄마표 집밥 만들기

<겉절이 소스 만들기>
[재료] 진간장 70g, 식초 한큰술 반, 설탕 두큰술,
참기름 1큰술, 고춧가루 40g
[활용요리] 부추, 양파, 파채, 배추, 시금치 등 바로 무쳐
먹는 겉절이에 활용하세요.

<오리엔탈 소스 만들기>
[재료] 올리브오일 2T, 시럽(설탕) 2T, 간장 1.5T
레몬즙(식초) 2T, 다진마늘 1T
[활용요리] 샐러드, 두부, 비빔밥 등

<장아찌 간장 어묵 볶음>
[재료] 어묵1팩, 양파 1개, 장아찌간장 반컵, 현미유
1. 볶음팬에 기름을 두르고 먹기 좋게 자른 양파를 볶는다.
(마늘, 고추 등 기호에 맞게 추가하세요)
2. 어묵을 1과 함께 볶는다.
3. 장아찌 간장을 부어 함께 볶는다.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성조숙증과 한방 생리



부천Y증경이사장 박종훈

어린이들의 성조숙증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 중 하나다. 상담을 하다보면 성조숙증은 질병보다 ‘성장’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 흔하다. 세태어로 ‘우월한 기럭지’인데 결국 외모지상주의의 한 단면이다. 성호르몬의 빠르고 과다한 발현으로 성장호르몬이 빨리 줄어 키가 크지 못하므로 사람값을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인간의 내면보다 겉데기에 집착하는 우리의 천박함은 슬프게도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쉽게 바꾼다.

성조숙증은 대체로 8세 이전의 여자아이와 9세 이전의 남자아이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의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여자아이에게 가슴에 멍울이 생기거나 초경이 오는 경우와 남자아이가 음모가 나고 변성기가 진행되는 경우. 둘째, 머리와 몸에서 땀 냄새가 진해지는 경우. 셋째, 감정과 성격의 기복이 심한 경우. 넷째, 얼굴에 피지나 여드름이 관찰되는 경우. 다섯째, 신장 대비 과다체중, 여섯째, 성에 대한 관심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중 2가지 이상이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4가지 이상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필요로 한다.

주요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관음증 사회, 비만이다. 서구화된 식습관은 공장식 축산과 가공식품의 첨가물로 환경호르몬과 여성호르몬 함유식품이 늘어나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킨다. 그에 따른 비만과 운동부족이 또 한 원인이 된

다. 게다가 섹시한 시청각물의 홍수를 비롯한 관음증 만연의 현상도 한몫 거든다.

한방생리학을 살펴보면 옛날얘기처럼 재미있다. 음인 여자는 양수인 7살 단위로 변화가 온다. $7 \times 1 = 7$, 생식선이 발달하는 시점, 따라서 ‘남녀칠세부동석’의 가부장적 개념은 바로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용어. $7 \times 2 = 14$, 생리가 오고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될 수 있다. $7 \times 3 = 21 \sim 7 \times 4 = 28$, 21살은 꽃다운 나이(방년)로 완숙된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은 14세 이전까지 급격히 성장하고 생리가 시작되면 성장이 지지부진해져 대개 16세에 성장판이 닫히지만 이론상으로 21살까지 키가 크다. 이 기간은 여성의 황금기로 육체적으로 힘든 출산을 치르면 산모나 아이가 모두 건강할 확률이 높다. 이후로는 $7 \times 5 = 35$, 제 아무리 경국지색이라도 외모부터 노화, $7 \times 6 = 42$, 여성호르몬이 줄고 갱년기가 시작되고, $7 \times 7 = 49$, 폐경의 기준이 된다.

성조숙증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약 10배 정도 많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성조숙증의 원인을 ‘뜨거운 피’로 보므로 치료도 피의 저장고인 간(肝)의 열(熱)을 해소시키고 영양을 고르게 하여 비만을 막고 머리를 맑게 하여 정신을 차분하게 안정시킨다. 하지만 약물과 운동요법 등 장시간 치료를 필요로 하고 효과는 솔직히 미지수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성조숙증은 가정교육과 생활지도가 꼭 필요하다. 두 살배기가 휴대폰에 능숙하게 다루면 부모들은 엉뚱한 상상을 하며 좋아한다. 능글맞게 성인가요를 부르고 섹시하게 몸을 흔들면 또래보다 영재요 천재로 ‘더 똑똑하고 더 크게’ 자랄 재목으로 착각하고 자랑한다. 다만 성조숙증 같은 이상상태는 아직 극소수이고 한방생리학의 기준도 깨끗하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추세와 우리 세태를 보면 걱정은 늘어난다.

범람하는 영상물의 선별(대표적으로 TV바로보기), 휴대폰 절제, 나이에 맞는 춤, 음악 등 정서교육, 영양의 과다 및 편종을 고려하고 인스턴트식품을 줄이고 슬로푸드 장려, 가족이 함께 하는 야외활동과 운동습관, **유아교육부터 시작되는 경쟁을 지양하고 스트레스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과체중으로 출생한 신생아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한방에서는 임신 중의 태교도 아주 중요하게 본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회원운동팀 박 다 정

지난 겨울,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을 목도했다. 부패한 정권의 중도하차와 새 정부의 출범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되는 해이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한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정치에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라는 전국의 4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출범하였다. 부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6월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을 발족하여 활동 중이다.

지금의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지율에 상관없이 지역구에서 1등을 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런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

을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비례대표 47명이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어차피 선거 승패는 지역구에서 1등 하는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표심을 왜곡하고 거대 양당 구조를 가능케 하며, ‘적폐’를 방치해 왔다.

그래서 비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10%를 득표한 당이 있다면,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하여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10%의 의석수, 즉 30석을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준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253석이 지역구에서 확정된다. 그러다보니 정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역구에서 인기 있는 후보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다. 힘 있는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소수 정당은 아무리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를 잘 잡는다면,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3대 의제, 11대 과제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대 의제, 11개 과제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보장’ 같은 경우 전국YMCA가 지난 몇 년간 운동과제로 힘써왔던 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11개 과제 중 우리나라 정치의 진일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하나도 없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은 9~10월엔 시민들에게 정치개혁 의제들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부천Y 회원들께서도 올 연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3대 의제	11개 과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장애인 투표권 보장 등

“죽 쑤어 먹자!”

한 먼 희 부천YMCA등대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죽을 쑤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거나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나빴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죽이 되었으니 낭패라는 뜻으로 씁니다.

죽은 ‘곡식을 알갱이가 흩썩 무르도록 오래 끓인 음식’입니다. 죽의 한자 ‘粥’에서 가운데 글자 米가 ‘쌀 미’이니 곡식 중에서도 주로 쌀을 그릇에 넣고 끓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왜 죽을 자주 쑤었을까요? 또 죽은 밥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죽은 나눔입니다.

옛날 농민들은 식구에 비하여 양식이 부족한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죽을 쑤면 밥을 할 때보다 양이 많아져서 모두가 나누어 먹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죽은 배려입니다.

죽은 치아가 부실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식은 죽 먹기’로 쉽게 먹

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의 이유식이나 환자의 식사로 적합합니다.

셋째는 죽은 염원입니다.

죽은 가족의 간절한 염원을 담기도 했습니다. 팔죽이 대표적인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잡된 귀신들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겨울은 11월 초순의 입동(立冬)에서 시작하고 소설(小雪) 대설(大雪)을 거치며 오는 하얀 눈과 함께 깊어갑니다. 그리고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맞이합니다. 겨울은 동물들이 활동을 쉬고 숨는 계절이니 힘든 계절입니다. 사람에게도 겨울은 어려운데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하순의 동지(冬至)에 먹는 팔죽은 팔을 삶아 으깨어 거른 물에 쌀을 넣고 쑨 죽입니다. 옛말에 팔죽을 먹어야 쉽게 늙지 않고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팔죽을 솔가지에 묻혀서 대문에 바르면 집안으로 잡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유태인이 과거 이집트에서 대문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피했던 사건과도 서로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팔과 피는 모두 붉은 색이며 태양(太陽)의 상징인데 농경민은 곡식인 팔을 유목민은 짐승의 피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팔죽 속에는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었으며 자기 나이만큼의 개수대로 먹기도 했습니다. 새알심도 해의 상징인데 일년은 한해이니 나이를 먹는 상징이 됩니다. 이번 동지에는 팔죽을 먹으며 나눔의 지혜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새해의 염원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바람길,

대장들녘

부천 오정구엔 120만평 대장들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120만평 서울 강서구 평야, 동부간선수로, 굴포천, 여월천과
잇대어져 있지요.

부천은 환경적으로 어떤 도시일까요?

- 인구밀도 전국 1위 (서울이 전국 1위)

- 불투수율* 61.7%로 전국 1위

* 아스팔트 등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비율. 불투수율이 높으면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아 지하수 고갈, 저지대 침수 등의 문제를 낳는다.

- 분지 지형인 부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편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그래서 **바람길**이자 **숨구멍**인 대장들녘이 부천이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들녘이 품은 생명

대장들녘엔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37종 외에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고라니, 줄장지뱀, 금개구리,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황새, 황로, 침부엉이, 참게 등)



우리가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대장들녘 논습지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들녘이 품은 겨울 생명〉에 참여하기

: 11월 25일(토) 오전 9시~오후 2시

‘금개구리는 가족농부’에 참여하여 함께
토종벼 농사짓기

문의 : 회원운동팀 박다정 032-325-3100

핵발전소는 핵무리인것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
게다가 지진위험대

-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이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이는 후쿠시마의 13배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부산 지역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전세계에서 최대입니다. 만약에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부산, 울산, 경주 지역은 60여 개의 활성 단층이 있는 곳으로,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데 무려 “10만년”

- 인류가 존재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시대까지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 핵연료.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선조가 남긴 유물이 '핵쓰레기'라면, 후손들은 대략 난감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

전기가 생산되어 운반되는 길에는 송전탑이 있다.
그리고 부산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밀양의 송전탑을 타고 흘러 대구, 수도권의
소비자들, 즉 우리들의 전선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송전탑 아래에는
'사람'과 '마을'이 있다.



2005년부터 765kV 송전탑을 반대해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할매, 할배들이었다.
송전탑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높은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농사, 축산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땅과 집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제 값을 주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

더 심각한 문제는 찬성, 반대 주민들이 나뉘어 서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예전의 따뜻하고 친밀하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져버려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월성 주민들의 몸속에 삼중수소

월성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총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경주 월성 나야리. 한전 직원들은 매번 ‘안전하다’고 하지만 월성 주민들의 소변에서는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심지어 5살난 아기에게서도... 방사능 물질이 몸속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전 직원들은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수명연장이 취소된 월성1호기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했으나
경주 주민들의 소송으로 2017년 취소 판결이 났다.



2016년 38년만의 최대 지진, 경주

원전이 들어선 경주, 울산, 부산 지역은 활성단층이 있는 이른바 ‘지진대’이다. 2016년 9월 12일에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5.1, 5.8 규모의 지진은 원전 6기가 가동되는 경주에서 시작되었다. 600여 회의 여진을 겪으며 경주 시민들은 행여나 핵발전소가 터질 위험에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더 큰 불안을 겪었다.

탈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조건 전기 아껴쓰기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찾아보기

주변에 탈핵 알리기

(탈핵벤티지, 소책자, 기사 공유, 소문내기)

지역이슈 잘 지켜보기

(부천시민햇빛발전, 밀양 송전탑, 경주 지진, 공론화위원회,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마피아 등)

미세먼지로부터

삶의 질 지켜내기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

173위 / 180개국

*환경성가지수(EPI) 2016. 미국 예일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

미세먼지는 무엇?

- ▶ 미세먼지 (PM10 : 머리카락 1/10) , 초미세먼지 (PM 2.5 : 머리카락 1/30)
- ▶ 미세먼지는 흙먼지와는 성분이 다르다.
석탄화력발전소, 노후한 경유차량(디젤) 배기가스 등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 먼지, 습도와 만나 발생하는 것!
- ▶ 특히 ,민감군(영유아,어린이,임산부,고령자,만성질환자)들에겐 치명적!
-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
- ▶ 전세계적으로 한해 700만 명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수치!

정확하게 측정,예보되고 있는가?

부천 대기질 측정소 현황

시설명	위치	설치년도	변경
내동 측정소	신흥동 주민센터	1986년	2006년
소사본동 측정소	소사 어울마당	1995년	2009년
중2동 측정소	책마루도서관	1995년	2011년
오정동 측정소	오정어울마당 아트홀	1995년	2011년
계남공원 측정소	계남공원	2004년	-

하지만 보통 미세먼지 측정소는 **건물 옥상**(10m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의 대부분의 측정소도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가 아닌 대부분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측정소 수가 적어 정확한 측정값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 차량 구입시, 노후 경유 차량(디젤)은 NO!!
- 노후 차량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기 (정부에서 지원 중)
-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 함께 할 수 있는 일

- 부천시에 측정소 추가 설치, 정기적인 물청소 및 종합적인 대책 요구
-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 갖고,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참여하기
- 가정용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부천시 지원 중)

러닝유스 1기!

대장들넉으로 달리다!

Learning&Running Youth는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발로 뛰는 청소년이라는 뜻으로, 부천Y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뜨거운 여름방학은 러닝유스와 함께! 부천에 사는 23명의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의 숨겨진 보물같은 땅, ‘대장들넉’에서 보낸 여름날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날은 부천에 살고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대장들넉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천Y 회관에 모여 처음 만난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고 친해지기 위해 소소한 놀이들로 열었습니다. 부천시 지도를 직접 그려보면서 우리가 자주 가는 곳과 대장동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동네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서 우리가 활동하게 될 대장들넉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날은 오정동 금개구리는, 대장동 마을, 연꽃단지로 달려가 부천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와 오래된 부천의 역사를 만나 그 즐거움에 폭 빠

저보았습니다. 동네에서 버스를 타면 그곳에 가면 영화관, 노래방은 없지만 살아있는 생물들의 소리와 냄새, 움직임이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논과 습지에 사는 맹꽂이, 개구리, 우렁이, 철새 같은 생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 본 논두렁은 처음에 들어가기는 좀 두렵고 낯설었지만 볼수록 신기하고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했던 논생물은 바로 ‘우렁이’. 작은 더듬이를 움직이며 천천히 논바닥을 움직이는 모습과 초록색 벼에 달려있는 예쁜 분홍색의 우렁이 알들은 마음 나눔에서 단골로 등장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논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어렵기도 했습니다. 벌레가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고, 옷과 몸에 흙도 묻고 더운 날 몸을 많이 움직이니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활동에 임하는 친구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밝았습니다.

12-1번 버스 종점에 위치한 대장동 마을에서도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지도에는 ‘오정동’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넓은 지역은 사실 대장동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은 거의 아파트가 많은데, 대장동은 2층 이상 되는 건물은 찾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들판과 멀리 계양산까

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대장마을을 함께 둘러보며 마을 안에 숨 쉬는 자연을 느끼고 오래된 실화와 역사를 들으며, 우리가 서있는 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꽃단지에서는 습지에서 사는 생물들을 직접 떠서 관찰해보고 연꽃을 활용한 재미있는 놀이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 선생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연물을 활용해 놀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았는데, 그 재미에 빠져 웃음꽃이 피었죠. 우리는 연밥을 빼서 먹어보기도 하고, 넓은 연잎을 가지고 협동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에 더 재미를 느낀 날이었지요.



마지막 다섯째 날은 다시 회관으로 모여서 그동안 대장들녘을 발로 뛰었던 경험들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함께 같은 곳을 다녀왔지만 인상 깊었던 것들은 다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렁이, 개구리, 벼와 같은 친구들을 만난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환경생태연구재단 최진우 박사님의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동네 환경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발로 일구어진 도시에서 편리하게 살고는 있지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자연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연들을 앞으로는 깊게 관찰하고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작지만 우리들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닝유스 1기는 마무리되었지만 다음 방학에도 이어집니다! 청소년들의 멋진 활동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스스로 찾는 행복~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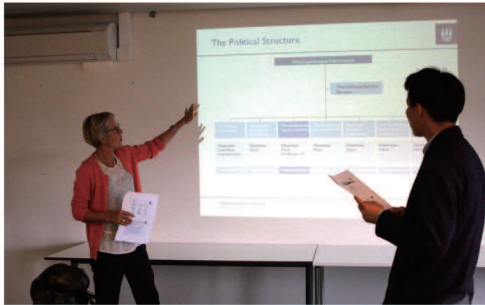


아기스포츠탄 교사 장 근 영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한 아이들이 많은 나라 덴마크...이곳의 교육은 무엇이 다를까?

평소 북유럽 선진국들의 문화와 유아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전국 YMCA연맹에서 교사연수를 준비하여 9월 1일부터 9일까지(7박9일)의 일정으로 덴마크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스스로 찾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광양, 구미, 대전, 마산, 부천, 여수, 울산, 청주, 춘천의 9개 지역의 YMCA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이 참



‘Kid institution(아동협회)’를 방문

가했으며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세부 일정이 진행되었다. 첫 공식일정으로 ‘Kid institution(아동협회)’를 방문하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덴마크의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듣고, 0세부터 6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기관 ‘Børnehuset Blåkilde’, 덴마크

유치원 ‘Forfatterhuset Kindergarten’, 덴마크 공립학교 ‘Valby skole’와 학생 소셜 클럽 ‘Valby Youth Club’을 방문하여 유아부터 청소년의 교육 시설물들과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 곳 교육의 특별한 점은 **수업 시작하기 전 15분은 의무적으로 야외에서 땀이 나도록 놀이를 하고 본 수업 시간은 30분이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야 문자나 숫자 등의 학습을 배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놀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리고 놀이터를 유심히 살펴보니 나무원목으로 만들어진 놀이 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다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 물어보니, **아이들은 놀면서 다치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배치했다고 한다. 우리가 교육기관들을 방문했던 날들은 제법 비가 왔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도 이렇듯 낯설지 않고 신나게 바깥 놀이하는 것을 볼 수



‘Børnehuset Blåkilde’ 방문



‘Forfatterhuset’
유치원내에 있는
놀이터

있었다.

덴마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안테의 법칙’을 통해 ‘나’만이 아닌 ‘우리’란 개념을 익히도록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나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취제’의 문화가 자연스레 발전이 된 것 같다. 또 물가가 높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지만, 평균 퇴근 시간이 4시로 일보다 사람중심의 사회분위기 덕에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교육제도가 잘되어 있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유치원 및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정부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아 덴마크의 모든 어린이는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비가 오는데도 신나게 야외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선진국인 덴마크의 교육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Y에서 오래전부터 추구했던 ‘어린이는 놀면서 배운다’는 기본 교육방침은 분명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법’이라는 울타리로 감싸 안아 덴마크 어린이들의 놀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방과 후에도 자신만의 꿈과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며,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마 덴마크도 지금의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고 사람중심의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으리라...

7박 9일이라는 짧은 연수 기간 동안 덴마크의 선진문화와 교육 내용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연수의 주제처럼 “스스로 찾는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이유는 ‘나’보다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회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은 아닐까? 어쩌면 ‘행복’은 연수 주제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작은 나무



광장기자단 왕정현

2004년 1월, 책을 선물 받았다.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머리에 부는 바람이 좋은 오늘, 다시 펼쳐본다. 다섯 살 작은 나무를 만난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웨일즈, 애가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 있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P.15)

저녁을 드시던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자, 봐라, 작은 나무야. 너 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단다. 만약 내가 그 송아지를 못 사게 막았더라면 너는 언제까지나 그걸 아쉬워했겠지. 그렇지 않고 너더러 사라고 했으면 송아지가 죽은 걸 내 탓으로 돌렸을 테고, 직접 해보고 깨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요, 할아버지.”

“자, 그런데 너는 뭘 깨달았니?”

할아버지가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다. (P.141)

수박을 두드려볼 때는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팅’ 소리가 나는 수박은

아직 하나도 익지 않은 것이고, ‘탱’ 하는 소리가 나면 지금 바야흐로 익고 있는 중이며, ‘텅’ 소리가 나는 수박이라야 완전히 익은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진리가 그러하듯이, 이렇게까지 해도 수박을 잘랐을 때 원하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항상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P.220)

봄이 오기 직전이였다. 나는 칼 길에서 골짜기 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오두막집 뒷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 곳에다 흔들의자를 옮겨놓으셨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꼭대기 쪽을 올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그 주황과 초록과 빨강과 노랑 무늬의 드레스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의 가슴 앞섶에는 나에게 쓴 편지가 꽂혀 있었다.

‘작은 나무야, 나는 가야 한다. 네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널 기다리고 있마, 다음 번에는 틀림 없이 이번보다 더 나를 거야. 모든 일이 잘될 거다.’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의 그 작은 몸을 안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날 낮 동안을 할머니 옆에서 보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도 나와 함께 있었다. (P.329)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 인디헤나(indigena; 원주민이라는 뜻)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 이를 피해 산속에서 살았던 체로키족 소년인 작은 나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삶을 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작은 나무가 산속에서 지낸 4년의 시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도 작은 나무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나치고 있는 내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출처]
저자 포리스트 카터
역자 조경숙
아름드리미디어
2003.06.25

2018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11월은 회원모집운동의 달! 새로운 달을 맞은 11월 2일에 부천Y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모집운동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2018 회원모집운동은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라는 구호 아래 '탈핵, 대장들넉 지키기, 미세먼지 줄이기'를 3대 목표로 하는 회원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용인의 밤챙알챙 합창단 지휘자인 이해경 선생님의 지도로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합창곡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소리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천Y 회원활동의 상징이신 홍은정 전 이사님의 하모니카 독주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부천 지역사회의 큰 이슈를 알아보고 다함께 초에 불을 밝히며 더 나은 2018년을 향한 염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신나는 탈핵댄스로 발대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2월 19일 보고대회와 송년예배까지 부천Y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또 만나요!



등대생협 나눔터 전환

- 10회의 조합원 간담회,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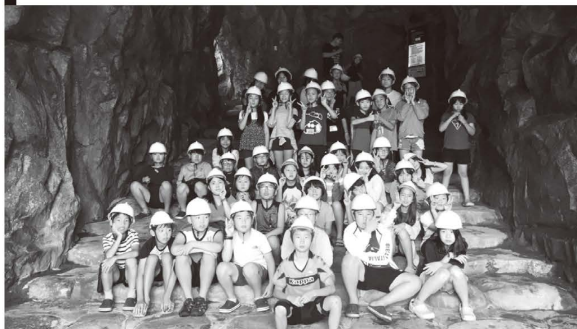
부천Y 등대생협은 1990년 생활재 공급을 시작하고, 1999년 회관 1층에 나눔터(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산물 취급 자체가 생명살림, 농촌살림 운동이었던 생협 초기와 달리 유기농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나눔터’가 협동조합운동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올해 7월초부터 이사회 3차례, 조합원 간담회 10차례를 진행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6층 신나는방에서 62명의 대의원과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노진영 이사의 사회와 김은주 이사의 기원으로 마음나눔을 진행하였고, 2부 임시총회에서는 김영주 이사장의 사회로 ‘나눔터 방향전환’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임시 총회를 시작으로 **나눔터는 매장 중심에서, 다양한 활동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등대생협 조합원께 감사드리며, 11월 21일(화)

오전 10시에는 장원봉 교수를 모시고 ‘생협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특강이 진행됩니다. 나눔터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상상하고,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어린이 Y] 영월 역사 캠프



영월 역사캠프가 역사기행단과 고학년 친구들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종과 김삿갓의 사연이 동강과 서강에 녹아있는 고장 '강원도 영월'에서 8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8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강원도 영월일대 장릉, 청룡포(단종유적), 김삿갓유

적, 고씨굴, 별마로 천문대 등을 다니며 영월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텐트에서 숙박하며 작은 독서실에서 글도 쓰고, 탄광문화촌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서 속에서 글로만 봤던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며 몸과 마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Y] 서천 자연 캠프



자연기행단 32명의 친구들이 8월 10일(목)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4시까지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서천으로 함께 떠나 넓은 소나무 숲에서 한 바탕 뛰어도 보고, 여러 동물과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서천 생태원도 함께 다

니고 바다 내음을 맡으며 친구들과 바닷가 물놀이도 신나게 하였습니다. 올 여름 자연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공동체성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스포츠탄] 7세 지리산 등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9월 15일~16일 일곱 살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노고단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얀 구름을 볼 수도, 먹을 수도 있다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안고 지리산으로 고고~!! 도착해서 만난 열두 개 지역 YMCA친구들이랑 지리산 구호도 같이 외쳐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이름이 적힌 명함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노고단 등반이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받아낸 금메달을 보며 아이들은 뿌듯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며 모든 지역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지리산 등반의 기억이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 토요나눔장터 폐장식



부천지역의 재사용, 재활용 문화 확산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한 문화운동으로 시작한 녹색가게 토요나눔장터가 11월 4일 폐장식을 끝으로 올 한해 운영을 마감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열성으로 나눔 장터에 참가해

주신 부천시민들과 매주 봉사하느라 애쓰신 녹색가게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아시아국제문화교류프로젝트 ‘베트남’



2015년부터 지속되고 깊어지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평화를 위한 여행. 아시아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가 올해에도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 함께 하면서 한층 새로워졌지만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나눈 우정과 감동은 여전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는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기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청년-청소년 멘토그룹 양성 프로젝트’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의 핵심 활동인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청년, 청소년들의 프로젝트인 ‘청년-청소년 멘토그룹 양성 프로젝트’가 뜨거운 여름부터 쌀랑한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멘토 그룹 워크숍과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사회 참여멘토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된 청년, 청소년들이 만들어낼 2018년의 프로젝트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제1인생학교



송내동과 부천 방방곡곡에 새로운 문화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나래유랑단 께네마. 점점 늘어나는 공연 요청에 즐거운 2017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적과 장르의 예술이 함께 하는 총천연색 공연단 나래유랑단 ‘껴네마’가 앞으로 더욱 크게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린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11월 9일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에 그린합창단의 열아홉 번째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합창 뿐만 아니라 스포츠댄스, 해금 연주 등으로 공연이 더욱 풍성해졌고, 앵콜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연주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클럽으

로써 부천Y 이웃돕기 기금에 1,000,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등대생협] 행복한 나눔장터



2017년 10월 31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포도마을 사잇길에서 부천Y 등대생협 풋볼들의 행복한 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등대생협 활동의 의미를 나누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 기금 마련을 위해 부천 YMCA 등대생협의

풋볼들이 정성껏 준비한 건강하고 맛있는 먹을거리와 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용품들, 생협에서 준비한 수제막걸리와 현미가래떡, 꿈품에서 준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수제품(천연비누, 린밤, 핸드크림, 천연세탁세제 등)을 조합원분들, 학부모님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익금은 등대활동의 기금과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 부천Y 조정상담 전문위원 위촉

회원
동정



부천Y이사회는 정진 소장(회복적 생활교육 연구소)을 부천Y 조정상담 전문위원으로 2017년 9월 12일(화) 위촉했습니다. 정진 소장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서부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춘천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과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전문가로 부천Y 공동체의 갈등조정과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클럽일정 •

녹색가게

2017 토요나눔장터 폐장식

일시: 11월 4일(토) 오전 11시 50분
장소: 중앙공원 건너 시청 앞 인도

녹색가게 정회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일시: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녹색가게 11월 운영위원회

일시: 11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5층 나눔방

녹색가게 12월 운영위원회

일시: 12월 12일(화) 오후 3시
장소: 5층 나눔방

쌀한돌클럽

쌀한돌 8월 정기모임

일시: 8월 29일(화) 오후 1시
장소: 5층 나눔방

쌀한돌 9월 정기모임

일시: 9월 26일(화) 오전 9시
장소: 대장들녘

친환경급식네트워크 식생활 강사단 연수

일시: 9월 12일(화) 10시~15시
장소: 시민학습원

식생활교육

- 덕산중: 9월 4, 5, 6일
- 원중초: 11월 17, 20, 22일
- 송일초: 11월 15, 16일

쌀한돌 10월 정기모임

일시: 10월 18일(수) 오후 3시
장소: 5층 나눔방

평생학습축제

일시: 10/21~22일 10시~5시
장소: 안중근공원

여월 농업공원 도시농업축제 논의

일시: 11월 4일

선용

제28회 선용사진전

일시: 11월 22일(수) ~ 28일(화)
장소: 아리송갤러리(송내어울마당)

디딤돌

거리상담 '청소년, 마음에 날개를 달다'

일시: 10월 21일(토) 오전11시~오후5시
장소: 부천역 마루광장

좋은아빠모임

보라매 안전체험관 견학

일시: 11월 12일(일)



• 주요일정 •

청소년상담실

카운슬러대학 - 평화감수성깨우기

일시 : 10월 12일 ~ 11월 30일(총8회) 매주 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대상 : 일반성인 20명

장소 : 부천YMCA 신나는방

제12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일시 : 11월 16일(목) ~ 18일(토)

장소 : 부천Y 회관 앞 마당

제18회 생활신앙강좌

사회선교와 도전 21(강사 : 서광선 박사)

일시 : 11월 28일(화)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대장들녘 생태대탐사

일시 : 11월 25일(토) 오전 9시 ~ 오후 2시

장소 : 대장들녘 일대

철원 평화순례

일시 : 12월 2일(토)

장소 : 철원 월정리역, 소이산, 노동당사 등

2018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 및 송년예배

일시 : 12월 19일(화) 오후 7시

대상 : 일반성인 20명

장소 : 부천Y 회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제13회 청소년팀프로젝트

청소년사회참여 '나비효과' 활동보고회

일시 : 11월 11일(토)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들의 길위에 희망학교 [밍글라바! 버마(미얀마)]

기간 : 10월 27일(금)~11월 2일(목)

장소 : 미얀마 양곤 일대

직업탐색학교 '꿈트리' 2학기

기간 : 9월 29일(금)~11월 18일(토)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나래유랑단 '깨네마' 콘서트

일시 : 12월 1일(금)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평화기행

기간 : 12월 24일(일)~12월 29일(금)

장소 : 제주도 일대

송년문화행사

일시 : 12월 16일(토)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어깨동무나눔장터

일시 : 11월 4일(토)

장소 : 송내사회체육관 앞마당

부천청소년평화영화제

기간 : 11월 9일(목)~11월 11일(토)

장소 : 가톨릭대학교 IR관 컨퍼런스룸





제 12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
함께 하는 기쁨,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부천YMCA 사랑의 김장나누기

나눔 ♥ 김장 비용 후원하기

- 30,000원으로 1가정(10kg)에 김장김치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부천지역 270가정에 김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후원계좌 351-0373-4321-93 농협/ 예금주 부천기독교청년회

나눔 ♥♥ 고춧가루 후원하기

- 생협 나눔터(1층), 안내 데스크(지하1층, 4층)에 고춧가루를 내주세요.
- 너무 오래되어 묵은 고춧가루는 버리게 되니 가급적 신선한 것으로~^^.
- 기간 : 11월 15일(수) 까지

나눔 ♥♥♥ 김장담그기 자원봉사 참여하기

- 김장나누기 행사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11월 17일(금)	11월 18일(토)
오전 부재료 손질(50명)	오전 김치담그기, 박스포장(100명)
오후 무채썰기(25명)	오후 배송(2인이상1팀/30명)

당신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2018 회원모집운동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탈 핵

- 전기 아껴쓰기
-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찾아보기
- 탈핵 뉴스 찾아보기

부천Y 회원이 되시면
3가지 운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 안전지도 만들기
- 노후경유차 사용 자제
- 나무심기

대장들녘 지키기

- 대장들녘에 방문하기
- 녹지를 지키는 정책 요구하기
- 대장들녘에 사는 생물 알기

2017년 11월 2일(목) ~ 12월 19일(화)

2018 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 및 송년회

2017년 12월 19일(화) 오후 7시, 5층 체육관

“부천Y 회원들의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펼쳐집니다”